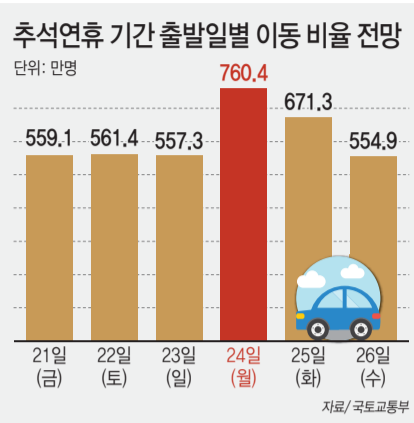


추석연휴 3664만명 이동... 23일 오전·24일 오후 혼잡

(추석 당일)

국토부, 21~26일 특별교통대책
일 평균 611만명·교통량 455만대
부산-서울 귀경 8시간20분 예상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총 3664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23일 오전과 24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26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합동 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의 교통수요 조사결과 추석 연휴 중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3664만명, 1일 평균 611만명이 움직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대고, 10명 중 8~9명(86%)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혼잡은 귀성객이 집중되는 추석 하루 전(23일) 오전과 귀경객이 몰리는 추석 당일(24일) 오후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 추석 당일엔 최대인 7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귀성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목포까지 5시간, 강릉까지 3시간 4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귀경 시간은 부산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 정보 화면. /국토교통부

서 서울까지 8시간 20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에는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 더 운행된다. 귀경객을 위해 24~25일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경인선, 경춘선 등 광역철도 9

개 노선도 다음날 오전 1시49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무인기)과 헬기가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압제운전을 단속한다. 통행량이 많은 영동·경부·서해안선을 중심으로 경찰청 압제운전차 21대를 운영,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도 감

시한다. 주요 거점마다 순찰자를 배치해 졸음운전도 막는다.

주요 고속철도역사의 방법용 CCTV(폐쇄회로TV)는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철도역사와 열차내 성범죄, 소란, 난동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다.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밤 12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 대상이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차요금소에서 요금정산 없이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발 전 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드라이브 스루·캡슐호텔·캠핑장 등 설치

2022년 고속도로 휴게소 확 바뀐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호텔과 캠핑장이 들어선다. 또 내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사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형 매장이 들어선다. 모바일 사전 주문 서비스도 전체 휴게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고객 중심의 휴게공간을 갖춘 환승거점이자 로컬 직매장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드라이브 스루형 매장이 시범 설치되고 2022년까지 휴게소 7곳으로 확대된다. 사전 주문으로 휴게소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기존 8개 휴게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휴게 기능도 강화해 캡슐 호텔도 들어서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는 캠핑장도 설치된다.

음식의 맛과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해 김치찌개 등 6종의 대표 메뉴에 대한 표준 레시피도 적용한다. 도공이 개발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커피(ex-cafe) 판매도 확산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선 주차장 옆에 보행자 통로를 따로 설치하고 주차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람 중심으로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편한다. 주차장 표준모

델 적용 휴게소는 기존 29개소에서 2022년까지 49개소로 확대된다.

또 내년까지 모든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소충전소는 현재 8개소에서 2022년까지 60개소로 증설한다. 현재 9곳에 설치된 휴게소형 하이패스 나들목(IC)도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대하고 내부에 시내·외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졸음운전 등이 우려되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공간도 만든다. 내년까지 화물차 교통량, 주차장, 부지여건 등을 고려해 사위, 수면, 세탁실 등이 구비된 화물차 라운지 20개소가 신축된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푸드트럭 등을 확대해 23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채신화 기자

3호선 안국역 '독립운동 테마역' 재탄생

그래픽 '100년 기둥' 등 설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지하철역으로 거듭났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 테마 역으로 새롭게 탄생한 안국역을 알리는 '안국역 다시 문 여는 날' 행사를 18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국역은 3·1운동의 중심지였던 북촌과 인사동 등을 잇는 연결 거점으로서 여운형, 손병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가 인근에 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안국역 곳곳에 독립운동을 알리는 기념물 설치 공사를 진행해 지난 7월30일 공사를 마쳤다.

술한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그래픽 '100년 기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표현한 역 입구 '100년 하늘문', 3·1운동과 민족사의 흐름을 강물로 구성한 영상과



안국역 출구.

그래픽 '100년 강물', 우리 헌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100년 헌법'이 마련되어 있다.

지하 4층 승강장에는 김구,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이봉창 등 시민에게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어록을 기록한 공간 '100년 승강장'을 조성했고, 8개의 주제로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새겨 다시 세운 '100년 결상'도 만나볼 수 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계단으로 꾸밀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ki10

<인천공항 역대 명절 기간 일평균 여객 순위>

순위	성수기 구분	일평균 여객(명)
1	2018년 추석 연휴 (18.9.21 ~ 18.9.26, 예측치)	197,206
2	2018년 설날 연휴 (18.2.14 ~ 18.2.18)	190,377
3	2017년 추석 연휴 (17.9.29 ~ 17.10.9)	187,623
4	2017년 설날 연휴 (17.1.26 ~ 17.1.30)	173,858
5	2016년 추석 연휴 (16.9.14 ~ 16.9.18)	163,622

/인천국제공항공사

추석연휴 인천공항 118만명 몰린다

공항공사, 6일간 여객수 전망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오는 21~26일 6일간 총 118만3237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이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일평균 여객은 지난해 추석연휴인 2017년 9월 29일~10월 9일 여객 수(18만 7623명) 대비 약 5.1% 증가한 19만 7206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8년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에 기록한 19만 377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역대 명절 일평균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이용객(출발 및 도착)이 가장 많은 날은 9월 22일로 21만 5240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2일(12만 656명), 도착 여

객이 가장 많은 날은 26일(11만 4214 명)로 예측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 중 약 400명의 특별근무인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쳐 혼잡완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출국장 혼잡완화를 위해 출국장 운영시간을 탄력 조정한다. 제1여객터미널 5번 출국장(이동)이 조기 개장(오전 6시)하고, 1터미널 4번 출국장(이동)과 2터미널 2번 출국장은 24시간 운영한다.

또 셀프체크인인과 셀프백드롭 등 스마트 서비스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현재 인천공항은 셀프체크인 기기 282대(1터미널 108대, 2터미널 174대), 셀프백드롭 기기 62대(1터미널 14대, 2터미널 48대)를 운영 중이다. /채신화 기자

온실가스 배출 줄여 서울시, 167억 확보

서울시는 2015~2017년 3년간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 78만8천t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세로 환산하면 167억원 규모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세는 t당 2만 2050원이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시설 등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이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폐기물 감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했으며, 소각 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를 바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상수도시설, 물재생시설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또 노후 송풍기와 펌프 등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김현정 기자

'도시양봉'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서 소개

울 2365 / 생산... 6년새 57배 성장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2012년 5월 5등으로 시작한 도시양봉사업은 현재 285통 규모로 성장했다.

명동유네스코 회관 옥상 등 32개소에 있는 285통의 도시양봉 시설은 공영 양봉장과 민간단체 어반비즈서울에서 관리한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생산한 꿀은 2천 365 l 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제12회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에서 이처럼 6년 만에 57배 성장한 서울의 도시양봉 사례를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슬로푸드페스티벌은 세계 143개국의 농업인, 목축인 등 7천 명이 참가한다. 먹거리 시장이 열리고, 토론회 등 다양한 콘퍼런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양봉장 전경.

서울시의 도시양봉 사례는 22일 '도시양봉에 관한연구'(City bees - A look at urban beekeeping)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소개된다.

양봉은 도심 생태계의 복원 척도가 된다. 꿀벌의 수가 증가할수록 꽃의 발화율도 증가하며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다. 그에 따라 곤충과 새들이 모여들어 도시의 생태계 복원을 돕는다. /김현정 기자